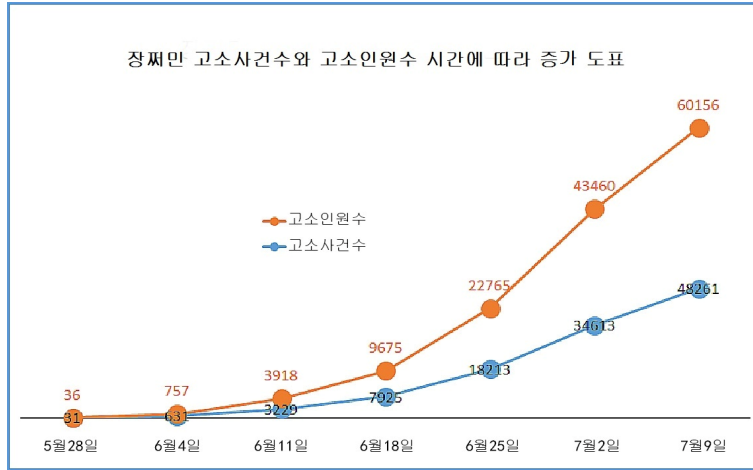


2개월 만에 6만여 명, 장쩌민을 고소

2015년 5월부터 7월 9일까지 이미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룬궁을 박해한 범죄자 장쩌민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고소인 대부분은 중국대륙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들이며 또 세계 21개 국가의 567명 파룬궁수련생들도 포함된다. 7월 초부터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베이징에서 이른바 ‘안전검사’로 일부 우편물이 정체되었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생들은 인터넷, 전자우편, 녹음, 팩스 등 더 많은 방식으로 장쩌민 고소장을 보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장쩌민을 고소한 민중들의 용기를 찬양하다

일찍 주(州) 의원과 여러 차례 시 의원을 역임했던 캐나다 정치가이며 변호사인 존 파커(John Park)선생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중공의 혹독한 박해와 압력에도 두려움 없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용기는 대단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방사회가 더욱 장쩌민 고소 열풍에 관심을 기울여 중국 민중을 성원해야



2015년 5월부터 7월 9일까지 망후이왕에 접수된 장쩌민 고소 사례 총수와 고소인 총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 도표

한다고 호소했다. 존 파커는 장쩌민 고소 기세를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중국사회에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했다.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자유당 상원 중진 의원 버니는 “저는 인류의 존엄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사상의 자유를 위해 나는 당신들(파룬궁수련생)과 함께 서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캐나다 국회의원 켄트는 “이미 뒤통이 나서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들의 용기는 칭찬할 만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장쩌민 등 박해 원흉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만 시간문제라고 인정했다.

대륙민중들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성원

각 지역 파룬궁수련생들은 서명을 받는 중 대부분 대륙 민중들이 장쩌민 고소에 대해 아주 지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은 “일찍 고소했어야 합니다.” “생체장기 적출은 천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간, 매국노”는 꼭 고소해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북경대학 법학박사이자 유명한 변호사이며 미국 하버드 법대 방문학자인 텡바오(滕彪)는 “중국공산당은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과 죄수들의 장기를 적출했고 최근 공개된 사례를 보면 경악할 정도다. 파룬궁 박해는 여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모두 반 인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모두 법정에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의 유명 인권변호사 정언충(鄭恩寵)은 2015년에 이르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자 역사의 필연이라며 중국 대륙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많은 법학 교수가 법률 면에서 장쩌민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둥난(東南)대학 법학 교수이자 유명한 변호사 장짚닝(張贊寧)은 “나와 나의 동료들은 장쩌민 고소는 사람들을 고무하는 일이라고 인정한다. 중국 국민의 법률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우리들은 반드시 국민의 권익보호 행동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민 양광(楊光)은 문장에서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만 명 뒤에 1억 명이 있고 1억 명 뒤에 수억 명이 있으니 파룬궁수련생들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길림성 도문시 최명숙은 6번 납치 되어 박해 받다

[망후이왕] 나는 길림성 도문시 조 선족 파룬궁수련생 최명숙이다. 올해 62 세로서 파룬궁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16년 동안 중공당국에 의해 6차례나 납치당했고, 3차례 노동교양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4년 형을 판결 받았다. 또 핍박에 부득불 유리걸식을 해야 했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열조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나는 내가 받은 박해경력을 써서 세인들이 이 한차례 박해의 사악함을 인식하고 동시에 박해에 참여한 경찰들이 재빨리 깨어 나기를 희망한다. 돌아서면 희망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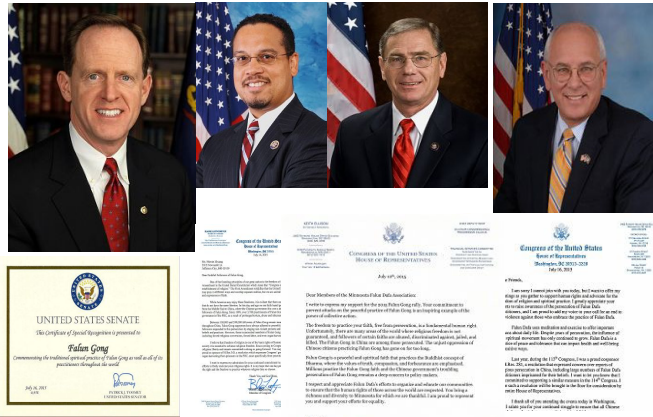
직장에서 해고되다.

나의 직장인 연변정유공장은 중앙 직속단위이다 연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서

를 쓰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했다. 나는 연마한다는 한마디 말에 정규직으로 10여 년을 출근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이는 철두철미한 위법 행위이며 곧 바로 장쩌민의 파룬궁수련생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라는 사악한 지령으로 일어난 범죄이다 (뒷면에 계속)

파룬궁 반박해 16년, 미국 국회의원 여러 명이 서한을 보내 성원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고 이때부터 전 세계 파룬궁수련생들은 진상을 알리고 반 박해를 했다. 매년 '7.20' 기간이면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집회, 대 행진과 촛불추모 등 활동을 거행하고 박해제지를 호소한다. 2015년 '7.20'전야 미국 펜실바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패트릭 투미는 파룬궁에 특별 포상을 수여하였고 여러 미국국회 의원은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서한을



서한을 보내 파룬궁 반 박해를 성원한 일
부분 미국국회의원 및 표창서

보내왔다. 편지에서 그들은 국회에서 연합으로 결의안을 발의하여 여전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공정권의 허락을 받아 계통적으로 대량의 파룬궁수련생을 포함한 양심범들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데 대해 규탄 한다고 표시했다.

여러 국회의원들은 16년이나 되는 반박해 여정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이 보여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용기에 탄복하고 감탄했다.◇

(앞면의 계속) 6번 납치되다

①2000년, 나는 도문시 세뇌반에 납치 되었다. 강박으로 파룬궁을 모독한 '초점 방문 취재'를 보게 하였고,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핍박했다. 쓰지 않는다고 모욕, 위협 공갈했고, 체벌을 가했다.

②나는 2000년 12월 정부에 정황을 반영하기 위해 북경에 청원갔다. 결국 북경 한 구치소에 7일간 감금돼 단식으로 항의하다 음식물주입, 세워놓기,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박해를 당했다. 7일 후 나 혼자 북경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직장 책임자는 사람을 파견해 나의 집에 와 돈 2000여 위안을 갈취해가면서 내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집 식구들에게 아무런 일도 없으니 집에 돌아와도 된다고 했다. 내가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월궁파출소 경찰들이 들이닥쳐 나를 납치해 불법으로 1년 노동교양을 시켰다. 하지만 건강상황이 엄중해 노동교양소에서 풀려났다.

③2001년, 나는 한 동수의 집에서 쳐들어온 경찰에게 납치 되어 또 불법적인 1년 노동교양을 받고 장춘 헤이쭈이쯔 여자 노동교양소에서 강박으로 세워놓는 벌을 받았고 강제적인 세뇌와 노역노동 등 박해를 받았다.

④2004년, 나는 시골에 가 파룬궁 진상을 배포하던 중 납치됐다. 훈춘 구치소에 감금 되어 잔혹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그들은 나의 목에다 아주 무거운 물건을 달아매 놓고 얼마 동안이나 서있게 했는지 모른다. 후에 불법적인 2년 노동교양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

고서야 돌아왔다. 하지만 도문 경찰은 여전이 나를 풀어주지 않고 집에서 다시 도문 구치소에 납치해 몇 달 더 감금시킨 후에야 풀어 주었다.

2006년 3월에 또다시 집에서 납치돼 도문 안산 구치소에 갇혔다. 박해에 항의해 나는 100여일 단식했는데 그들은 주입 물에 여러 번 알지 못 할 약물을 넣어 토하고 싸게 하여 전신이 나른해져 마지막에는 뼈만 앙상하고, 한 가닥 숨만 붙어 있었다. 하지만 도문시 공검법에서는 전혀 나의 생명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판결을 내려 장춘 여자감옥에 보냈다.

장춘 여자감옥에서 나는 인성을 잃은 각종 폭행을 당했다.

처음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자세로 서 있게 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함) 몇 일이 지나자 발이 부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고 신체는 너무나 허약해져 머리가 저절로 빠졌고 허약한 몸에 밤 10시 전에는 자지 못 하게 해, 고통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신체에 고통을 주는 동시에 정신적인 박해는 더욱 잔인했는데 매일 파룬궁을 모독하는 거짓말을 억지로 듣게 했다.

박해에 항의해 나는 또다시 단식을 시작했다. 그 때로부터 그들은 나를 병원에 가두어 놓고 4사람씩 한 조가 되어 밤낮을 감시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소금 혹은 짠 오리알을 넣은 주입 물을 마이라고 강박했다. 음식물을 주입할 때면 파이프를 위에 넣지 않고 폐에 들어가게 하여 숨을 쉴 수 없어 아주 고통스러웠으며, 코에

서 늘 피가 났다. 서 늘 피가 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말을 못하게 하고 매일 욕을 하고, 모욕하고 머리를 때렸다. 제일 받아내기 어려웠던 것은 몇 달 후 나를 끈으로 묶은 다음 달아매 놓았다. 즉 나의 두 손과 두 다리를 묶은 후 침대 난간에 달아매고 허공에 드리우게 했다. 이런 고문을 몇 시간 받았다. 후에는 사인(死人)침대에다 손과 발을 힘껏 당겨 침대 4각에 매놓고 침대에서 먹고, 배설하게 했고, 이도 닦지 못하게 했다. 이런 고문을 4일 동안 당한 때가 있었다. 나는 너무나 참기 어려워 연공하지 않겠다는 가짜 보증서를 썼다. 이런 정신상의 고통은 육체상의 고통보다 더욱 크다. 정신과 신체적으로 당한 박해 정도를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⑤2014년 3월, 나는 진상을 알리던 중 도문시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전용철은 자료 출처를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다고 나를 호랑이 의자에 앉혀 놓고 담배 연기를 나의 코에 불어넣어 나는 그만 토하였다. 그날 밤 재우지 않고 이튿날 나의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자 두 주먹으로 나의 팔을 연속 때려 팔이 부어 오르더니 지금 까지도 움푹 패여 들어간 자리가 있다. 그리고 뺨을 때려 얼굴도 부었고, 15일 후에야 풀려났다.

⑥2015년 5월, 나는 또다시 납치됐다. 국보대대에서 병원에 실고 가 검사한 후 신체에 엄중한 상태가 나타나 그날로 집으로 돌아왔다. 후에 국보대대 전용철 등 2명 경찰이 집에 찾아와 나와 남편을 국보대대에 한번 왔다 가라고 했다. 나는 또 어려운 유랑 생활을 시작했다.